

직업계고 학생 취업 · 진로 돕는다

2024 전북직업교육박람회, 8~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서 개최 학교홍보관 · 취업정보관 ·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프로그램 마련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2024년 전북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직업교육 비전을 제시하면서 도내 직업계고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중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먼저 8일 오후 2시 개막식과 함께 문을 여는 박람회는 △학교 홍보관과 동아리 체험관 △취업정보관 △공공기관 · 금융권 채용설명회 △직업계고 설명회 및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부스와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개막식에서는 전북직업교육 성과 보고, 직업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지역 특화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비전 선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학교 홍보관 · 동아리 체험관에서는 도내 31개 직업계고의 입학 정보와

교육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계열별 진학상담을 통해 바랍희장을 찾는 중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계열과 학교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정보관은 도내 우수기업의 채용 정보를 안내하고, AI온라인 면접관 ·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 전북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진로관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제도 및 입학승인제도를 통해 대학을 진

학하고자 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이 외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역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직업계고 출신으로 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 직업교육 퀴즈 이벤트 등이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미래를 이끌어 갈 더 특별한 전북직업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직업계고의 우수성을 알리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북직업교육박람회를 마련했다"면서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박람회에 많은 교육가족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국시도교육감들, 어린이날 맞아 응원 편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하길”

“즐거은 학교생활 영위토록 최선을 다 할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해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며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

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해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 오늘 'JOB DAY 취업박람회'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7일 오후 체육관에서 'JOB DAY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산업체 채용정보설명회, 상담체험부스, 청년고용정책홍보부스, 실천대비체험 프로그램부스, 흥미제고 이벤트부스 등을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 원진일미, 대림씨앤씨, 이퍼팩, 글로벌한 등이 참여해 채용설명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청년이음전주, 전주시마음건강복지센터 등도 함께한다.

또한 청년들의 흥미 제고를 위해 퍼스널컬러, 풍선아트, 핸드폰케이스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재학생 및 졸업생과 지역청년들에게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기획했다”며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취업박람회가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3일 도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서거석 교육감과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이다.

전북 교육 현안 공유 · 발전 방안 모색

전북자치도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첫 정책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서거석 교육감과 김명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이날 각종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양측은 앞으로 신뢰와 협치를 토대로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김명지 위원장은 “교육은 전북특별

자치도의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전북의 미래교육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신뢰와 협치를 통해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정책간담회는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 위한 긴밀한 정책 협의로 이뤄질 것”이라며 “도민들이 모두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민세은 학생 전기 삼원 · 지현 장학생 선정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민세은 학생이 제22기 전기 지현장학재단 삼원 · 지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지현장학재단은 (주)삼원특수지 창업주인 이명우 회장 부부가 설립한 재단으로 학업 의지가 높고, 학문적 자질이 우수한 4년제 대학교 3~4학년의 시각디자인 전공자를 삼원 · 지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제22기 전기 삼원 · 지현 장학생으로 선발된 민세은 학생은 (사)한국여성시각디자인협회의 제4회 KWWD신진디자인전 참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2023학년도 2학기 '함성소리' 활동, 부산 하나은행인 자기성장세 서포터즈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

또한, 교내 '총력 지구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에서 시각디자인 담당 학생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중앙동아리인 랑랑가해브커뮤니케이션의 부회장으로 언론사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시각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 2일 충북대학교에서 2024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신입교원들의 연구실 안전 구축 방안 등에 논의했다.

신임교원 연구실 안전 구축 방안 논의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 제2차 정기회의 개최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 2일 충북대학교에서 2024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신입교원들의 연구실 안전 구축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학은 무전공, 문과 · 이과를 탈피한 융 · 복합 연구 및 학과 신설 등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으며, 새롭게 안전 장비 및 안전 설비를 필요로 하는 학과와 연구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3년까지는 교육부 국립대 실험실시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연구실 환경개선 및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 교육부의 지원 규모는 대폭 감소해 연구실 안전 관련 법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은성 기자

이에 협의회에서는 연구실이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돼 연구활동중상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입교원 연구실의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2023년 지원 규모에 교육부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예산 배정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교인 강원대 · 경북대 · 경상국립대 · 부산대 · 서울대 · 전남대 · 전북대 · 제주대(회장교) · 충남대 · 충북대 등이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노인상담전문가 자격검정시험 운영키로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노인상담전문가 자격증이 최종 등록돼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시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향후 노인상담 전문가 자격 소지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전주기전대학 사회복지상담과에서는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졸업 시 대학 학위와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강인주 평생교육원장은 “우리 대학 특성과 방향인 힐링(Healing) 분야의 강점을 살려 노인상담 전문가 자격증은 물론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스포츠필라테스지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과 새로운 자격증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당신의 빛이 될 청탁 우리의 빛이 될 청렴’

전북교육청, 청렴표어 공모 수상작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 청렴표어(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청렴에 대한 교육가족의 관심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4월 8~17일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451건의 청렴표어가 접수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1차 해당부서 심사, 2차 평가위원회 심사, 3차 전지원 설문조사를 거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청렴표어 최우수작에는 ‘당신의 빛이 될 청탁, 우리의 빛이 될 청렴’이 차지했다. 이어 우수작은 ‘청렴으로 도약하는 더 특별한 전북교육’과 ‘청

탁은 거리 두기, 청렴은 곁에 두기’, 장려작은 ‘청탁은 제로! 청렴은 제대로!’와 ‘함께 뿌린 청렴 씨앗 꽃피우는 전북교육’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수상작 출품자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하고, 수상작은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명함 및 각종 청렴 캠페인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깨끗하고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청렴한 조직 문화 실천에 힘써, 더욱 더 신뢰받는 전북교육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청렴 라이브 교육

권익위 청렴연수원 주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3일 2층 강당에서 '2024년 청렴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이 교육은 △감질 근절의 내용을 담은 청렴 연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법령 청렴 강의 △청렴 골든벨 등 청렴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무겁고 딱딱한 청렴교육을 문화공연 형식으로 풀어내 공직자들의 청렴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명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특히 퀴즈 형식으로 청렴을 배우는 청렴 골든벨이 직원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도교육청 전 직원,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 공 · 사립 고등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교육은 청렴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더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 · 중 인공지능법학연구회 설립 추진

전북대 가상재해법센터-서남정법대 인공지능법학원과 '맞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해법센터(센터장 송문호)가 인공지능법학 분야의 연구발전을 위해 중국 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원장 천량)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송문호 센터장은 최근 중국 서남정법대학을 찾아 이 대학 천량 인공지능법학원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과 연구 분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서남정법대학 법학원은 중국 정법대학 가운데 2위, 중국 전체 법학 대학 중 5위 정도의 위상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으로, 인공지능법학원은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융복합 전문법학교육기관이다.

이번 방문에서 송문호 센터장과 리엔 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 단

위원회 서기, 천량 인공지능법학원 학장, 장광원 인공지능법학원 부학장, 주이아 국제협력교류관공실 해외관리과장, 리양 민상법학부 부교수, 천다평 인공지능법학원 강사 등이 참석, 천량 학장이 인공지능법학원의 교육과정, 학업 성취도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한 · 중 인공지능법학연구회 설립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현재 인공지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한국 정도를 꼽고 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보편화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관점의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